

## 박경완 DNA, 장성우에 이식

조범현감독, 수싸움·송구 등 장기 프로젝트 가동



kt 조범현 감독은 팀의 10년 미래를 위해 큰 출혈을 감내하고 포수 장성우(25·사진)를 롯데에서 영입했다. 2일 트레이드 발표 이후 꽤 시간이 흘렀다. 장성우는 타격훈련 도중 엄지 손가락을 다치는 작은 부상도 입었지만, 매 경기를 앞두고 강도 높은 수비훈련을 소화해왔다. 조 감독이 장성우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

포수 육성에 있어 국내 최고의 권위자인 조 감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장성우에게 자신의 가장 큰 성공작인 박경완(현 SK충무곡)의 DNA를 이식하고 있다. 조 감독이 갖고 있는 포수에 대한 철학은 매우 방대하고 전문적이지만, “모든 영광은 투수의 몫이어야 하고 실패는 모두 포수 책임이어야 한다”, “역전 위기인 9회말 주자 3루에서도 투수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떨어지는 변화구를 던질 수 있게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로 요약할 수 있다.

kt 코칭스태프는 타석에 선 타자의 자세, 최근 누적 기록 등을 모두 머릿속에 입력한 후 수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 빈틈없는 블로킹과 강한 송구 능력까지, 앞으로 장성우가 역대 최고의 포수로 꼽히는 박경완의 뒤를 이을 수 있도록 장기 플랜을 갖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조 감독은 직접 장재중 배터리 코치가 진행하는 훈련을 보며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볼카운트, 구종 및 코스에 따른 각기 다른 송구 동작 등 국내 최정상급 포수도 다 갖추지 못한 기술적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1차 목표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전술적 측면이다. 조 감독은 “투수만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다. 포수가 정성어린 준비로 타자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투수가 정확히 공을 던져줘도 한 경기에서 3~5차례 정반대의 결과, 장타를 맞는 경우가 나온다. 이 때 포수가 흔들리면 믿고 던진 투수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순간 자신이 준비한 시나리오를 다 뒤집어 재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박경완이 조 감독과 함께 경기가 끝나면 150개의 투구 하나 하나의 상황과 구종, 코스, 결과까지 달달 외웠던 것처럼 치열한 공부가 필요하다. 조 감독은 “그때도 요즘은 얼마나 좋다. 전력분석팀이 세밀한 자료를 준비해준다. 예전에는 다 수기로 했다.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다”는 말로 장성우에 대한 큰 기대감을 표현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 문태영 8억3000만원에 삼성행

KBL 역대 최고 보수…이승준은 SK로



문태영(37)이 KBL 역대 최고 보수로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KBL은 20일 “2015 KBL 자유계약선수(FA) 타 구단 영입의향서 제출 마감 결과 문태영, 이승준, 전태풍, 최지훈, 신윤하, 신정섭 등 총 6명이 타 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삼성이 보수총액 8억3000만원(계약기간 2년·연봉 7억4700만원·인센티브 8300만원)에 문태영을 잡는 데 성공했다. 문태영은 2008~2009시즌 동부 김주성(36)이 기록한 7억1000만원을 넘어 역대 개인 최고 보수액을 기록했다.

이승준(37)은 계약기간 1년, 3억6200만원에 SK로 간다. 전태풍(35)은 LG와 KCC, 최지훈(26)은 kt와 모비스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아 24일 오후 3시까지 이적할 구단을 직접 결정한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문태중(40)은 영입의향서를 받지 못해 25일부터 28일까지 원 소속구단 LG와 재협상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주상용 등 5명 V리크 FA 2차 협상 결렬

20일 오후 6시 마감된 V리그 2015년 FA(자유계약선수) 2차 협상 결과 남자 대상자 5명(김주완-대한항공, 김광국-우리카드, 주상용-LIG손해보험, 박성철-한국전력, 강영준-OK저축은행)과 여자 대상자 3명(김선영-도로공사, 한수지-인삼공사, 이소진-IBK기업은행) 중 어느 누구도 새 팀을 찾지 못했다. 원소속구단을 제외한 타 구단과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21일부터 31일까지는 원소속구단과 마지막 3차 협상을 벌인다. 만약 이 기간에 계약하지 못하면 그 선수는 FA 미계약선수로 다음 시즌에 출전할 수 없다.

### 스토리 베이스를

### I USA투데에서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 17일 넥센-한화전 ‘의미있는 7장면’

야구가 오묘한 이유는 한 경기를 놓고 관점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서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015시즌 초반 가장 극적인 경기를 꼽으라면 17일 대전에서 벌어졌던 넥센-한화전도 들어갈 듯하다. 이 경기는 미국인들의 시선도 사로잡았다. USA투데이 인터넷판이 19일(한국시간) ‘제 정신이 아닌 작전이 거의 통할 뻔했다’는 내용으로 넥

센-한화전을 다뤘다. ‘제 정신이 아닌’이라는 표현에서 메이저리그식 사고방식이 짐작된다. 물론 한화 김성근 감독을 옹호하는 이들에게는 ‘불경스러운’ 표현이다. 그날 오직 김성근 감독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작전으로 다졌던 경기를 뒤집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비정상과 창조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이날 경기는 7개 대목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했다.



한화 김경언이 17일 대전 넥센전에서 5-6으로 뒤진 9회말 동점 솔로홈런을 친 뒤 덕아웃에서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이날 경기는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만드는 극적인 승부였다.

사진제공 | 한화 이글스

# 1 심판 보크 편차 노린 김성근의 어필

### ●2회말 김성근 감독의 어필

김성근 감독은 넥센 선발투수 라이언 피어밴드의 견제 동작을 보고 “보크가 아니냐”며 어필했다. 이후 심판은 피어밴드의 1루 견제 때 2차 례 보크 판정을 내렸다. 피어밴드는 첫 번째 보크 판정 이후 보란 듯이 같은 동작으로 또 견제했고, 심판은 또 보크라고 했다. 물론 김 감독이 나오기 전에는 누구도 보크라고 하지 않았다. 이 장면에는 복선이 깔려있다.

10일 잠실 두산전에서 한화 미치 탈보트는 보크 판정 직후 글러브를 하늘로 던져 퇴장 당했다. 그때 김 감독이 어필했지만, 심판들은 탈보트의 투구 동작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김 감독은 순순히 물러나면서 “심판이 보크라고 하면 보크”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베테랑 감독은 일주일 뒤 넥센전에서 비슷한 상황이 나오자 또 어필했고, 원했던 결과를 얻었다. 심판 전체의 보크 판정 기준이 다르고, 개인마다 편차도 크다는 점을 알기에 버티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 2 안영명 주 3회 선발경기 한화 모두 승리

### ●선발 안영명의 조기 강판

한화 투수 안영명은 12일과 14일 대구 삼성전에 이어 17일 넥센전까지 일주일에 3차례 선발로 나섰다. 17일 2.1이닝 만에 강판된 것을 포함

해 모두 초반에 내려왔다. 메이저리그의 시각에서 보자면 미친 짓이고, 김성근 감독의 편이려면 선발전에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찾아낸 한화만의 방법이라고 여길 것이다. 결과는 안영명이 선발등판한 경기에서 한화가 모두 이겼다.

### 3 승리 위해선 포수까지 자극하는 김성근

### ●3회초 주전 포수 조인성의 교체

한화 조인성은 사흘 연속 중간에 교체됐다. 투수 리드에 불만이 있음을 보여준 김성근 감독의 결정이다. ‘감독은 경기 초반 내야 수비라인을 주무르면 안 된다’는 메이저리그의 격언이 있다. 현장감독인 포수는 두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베테랑 감독은 이를 어겼다. 조인성에게 불 배합에 대해 더 진지하게 공부하라는 신호이자, 이기기 위해선 이닝과 관계없이 과감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조치다.

### 4 적극적 공격으로 나타난 이용규의 변트

### ●4-6으로 2점 뒤진 8회말 무사 1루서 나온 송주호의 보내기번트

납득이 가지 않는 결정일 수도 있다. 막판이지만 1점이라도 따라가 상대에게 압박을 주면 뒤집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해석한다면

무시무시한 한 수다. 결국 1사 2루서 이용규의 변트 안타 때 2루주자 강경학이 득점했다. 넥센 수비의 빈 곳을 노린 이용규의 푸시번트와 과감하게 홈까지 내달린 강경학의 발이 한국야구의 높아진 수준을 보여줬다. 이 장면을 보면 번트는 결코 소극적 공격이 아니다. 가장 적극적 공격이다.

### 5 빅리그 금기 무색케 만든 특타의 결과론

### ●9회말 김경언의 동점 홈런

홈런보다는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김성근 감독은 15~16일 야간경기 후 부진한 타자들을 모아 특타를 했다. 수비 실수를 범했던 2루수 정근우도 같은 경험을 했다. 3일 대전 롯데전 이후 관중이 경기장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김 감독은 직접 펴고 배트를 들었다. 대전 관중은 그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한화 팬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기 후 특별훈련은 메이저리그 상식으로는 금기다. 더욱이 관중이 보는 상태라면 문제가 된다. 선수들의 자존심을 문고고 파란한 그들에게 나쁜 습관을 배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일 특타까지 소화했던 정근우는 이를 뒤 만루 홈런을 터트렸다. 15일 특타를 한 김경언도 이를 뒤 9회말 극적인 동점홈런을 날렸다. 적어도 결과에서만만큼은 메이저리그의 금기를 무색하

게 만들었다.

### 6 투수가 타석에 설 만큼 14명 아수 소진

### ●6-6으로 맞선 9회말 2사 만루서 투수 권혁의 타격

USA투데이는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날 한화는 엔트리에 있는 14명의 야수를 모두 출전시켜 9회말 권혁 타석에서 대타로 나갈 선수가 없었다. 또 하나 김성근 감독은 9회말 득점이 나지 않을 경우까지 생각했다. 참고로 그날 권혁은 10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야 하는 규정을 여겨 벌금 20만원을 받았다.

### 7 염감독, 10회에 꺼내든 초짜 배심한 카드

### ●연장 10회말 넥센 염경엽 감독의 투수 교체

사흘 연속 등판한 마무리 손승락이 동점을 허용하자 염경엽 감독은 10회말 배심찬으로 교체했다. 배심찬의 올 시즌 1군 2번째 등판이었다. 누구는 “감독이 경기를 포기했다”고 했고, 누구는 “다음을 생각하는 놀라운 용기”라고 했다. 내일이 있는 야구와 오늘에 모든 것을 거는 야구가 충돌했다. 이 한 경기의 승패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는 시즌 후 확인할 수 있다.

김종진 전문기자 marco@dong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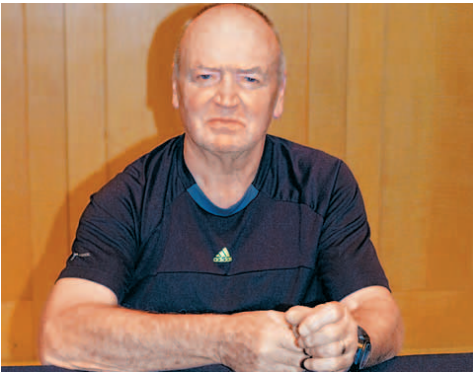
## “폴뿌리 육성·인프라 구축, 한국럭비 성장의 필수조건”

### ■그레이엄 헨리 전 뉴질랜드 럭비대표팀 감독

“어릴적부터 관심 늘려야 럭비 인구도 늘다” 25년간 교직생활 접고 럭비감독으로 성공 2011년 럭비월드컵 우승 진두지휘한 명장

그레이엄 헨리(Graham Henry·68) 전 뉴질랜드럭비대표팀 감독(현 뉴질랜드럭비협회 고문)은 세계 럭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지도자로 꼽힌다. 재임기간 중 치른 103경기에서 88승을 거뒀고, 2011년 자국에서 열린 럭비월드컵에선 우승컵을 조국에 안겼다. 유니폼이 검은색이라는 데 착안해 ‘올 블랙스’란 닉네임으로 통하는 뉴질랜드럭비대표팀이 월드컵 정상에 선 것은 1987년 제1회 대회 후 2011년이 2번째였다. 헨리 전 감독은 대표팀 지휘봉을 2번에 걸쳐 잡았다. 2004년부터 2년간 이끌며 2005년 브리티시 & 아이리시 라이언스, 트라이 네이션스 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데 이어 2009년 7월 다시 지휘봉을 잡아 평생의 소원을 성취했다. 뉴질랜드 상공회의소 초청으로 19일 ‘2015 잉글랜드 럭비월드컵(9월 18일~10월 31일) 자선행사의 밤’에 참석하는 등 3박4일의 내한 일정을 소화한 헨리 전 감독을 서울 반포동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

-럭비인으로서 궁극적인 비전과 꿈은 무엇이었나. “1970년대 초부터 럭비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학교 코치와 올랜랜드지역대표, 뉴질랜드 프로



방한기간 중 스포츠동아와 만난 그레이엄 헨리 전 뉴질랜드럭비대표팀 감독은 한국 럭비의 성장 조건으로 폴뿌리 럭비 육성, 럭비인구 증대,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남정현 기자

(블루스), 웨일스대표팀 등을 거쳤다. 이 때 큰 목표를 품었다. 럭비월드컵이었다. 조국의 제자들을 이끌면서 뉴질랜드를 국제스포츠계로 알리고 싶었다.”

-결국 꿈을 이뤘다.

“과거에는 평범한 학교 교사였다. 25년간 교직 생활을 했고, 10년간 교장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럭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릴 수 없었다.”

-40년간 지도철학은 가르침의 대상과 시기에 따라 계속 바뀌었다. 한때 독재자처럼 군림한 적도 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더라. 변화에 적응해야 했다.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선수들에게 뚜렷한 책임감을 심어주려고 했다. 적절한 역할 분배도 필수다.”

-뉴질랜드 럭비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

“역사, 문화, 전통이다. ‘올 블랙스’는 1905년 처음 영연방, 프랑스 등지를 투어했다. 이 때 검은색 유니폼을 입으며 지금의 애칭을 얻었다. 국민들에게 국가의 정체성, 자긍심을 심어줬다. 우리 1·2차 세계대전 참전을 계기로 정식 국가로 인정받았는데, 여기에 ‘올 블랙스’의 힘도 컸다. 물론 뉴질랜드의 인종적 구성도 럭비에 적합했다.”

-‘올 블랙스’가 매 경기 행하는 ‘하카(전통 춤)’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

“단순 이벤트처럼 보여도 이는 도전을 알리는 의식이다.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의미? 조상들에 대한 존경의 뜻도 있다. 뉴질랜드는 백인 외에, 사모아와 피지, 피시픽 문화가 섞여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하카’는 모두를 하나로 이끄는 힘이다.”

-한국 럭비의 풍토는 아주 척박하다. 어떻게 해야 대중과 가까워질까.

“한국 럭비의 세계랭킹은 22위다. 월드컵 출전국이 20개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머지않은 시일에 월드컵에 나갈 것이다. 뻔한 대답일 수 있지만, 인프라 구축과 어릴 적부터의 관심이 필수다. 한국에는 뚜렷한 대회도, 프로리그도 없다. 폴뿌리부터 키워야 한다. 럭비 인구를 늘려야 발전도 있다. 뉴질랜드에는 14만여명의 등록선수 중 프로 200여명, 세미프로 150여명이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대한체육회, 임기끝난 17개 위원회 재구성

대한체육회가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13차 이사회를 열고 2013년 구성된 19개 위원회 중 2년 임기가 끝난 17개 위원회(대한대학스포츠위원회·심판위원회 제외)를 재구성했다. 선수위원장은 문태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남북체육교류위원장에는 장호성 단국대 총장이 각각 선임됐다. 그밖에 이번 이사회에선 체육단체 통합 당사자들인 대한체육회 대의원(경기단체장 등)들에게 통합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의견 수렴 필요성이 있어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여부를 김정형 대한체육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 ‘광주U대회 지원 TF팀 3차회의’ 개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의 성공 개최를 위한 ‘광주U대회 지원 TF팀 3차 회의’가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주재로 문체부, 광주시, 전남도, 광주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선 문화, 예술, 콘텐츠, 관광, 홍보, 대회 운영 등 1·2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개막 1개월 전인 6월 중 3간의 매뉴얼을 실전에 대입하는 현장 리허설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